

300-2-087. 신문조서(金呂鍾 외 7명 보안법 위반)

■ 金呂鍾 외 7명의 사건 신문조서 수록

- 火曜會 新興青年同盟會員 曹奉岩·金呂鍾, 大邱青年會 申哲洙, 新 흥청년동맹 張順明(水山), 경성청년회 北風會員 徐範錫, 正午會 大邱青年會 崔元澤, 馬山青年會(조선일보 마산주재 기자) 金尙洙 및 大邱青年會 朴光世·尹貴德·崔補林·徐相郁·金昌俊·金占成·金旻東·徐學伊·馬昇宙·權吉道·李福洙 등의 活動 상황이다.
- 曹奉岩·金呂鍾·張水山·張順明·崔元澤 등은 勞農, 青年, 사상, 衡平, 女性 界 등 단체의 統一 소집을 위한 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 개최를 시도하였으나, 保安法 2조에 의하여 금지되었다. 모였던 군중들은 해산명령을 압박수단이라 여기고 격앙되어 파고다공원에서 집회를 시도하였다. 金呂鍾은 ‘査察當局에 反抗하라’는 赤旗를 흔들어 일대 시위운동으로 나가려 했으나 해산되었다. 이들은 團成社, 優美館 앞에 모인 군중에게 囂呼, 탄압, 反抗 연설을 하였고, ‘민중운동자대회 무산계급 노동자만세’를 고창하였으며, 파고다공원 앞에서 시위하였다. 이상의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론 동작 등은 曹奉岩 등의 민중운동자대회 준비회 간부들의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위 사건 해당자들의 행위는 보안법 7조 위반으로, 1925년 4월 30일 曹奉岩 외 17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 金呂鍾·申哲洙·金尙洙·朴光世·徐範錫·徐光郁·徐相郁·尹光得·尹貴德 등에 대하여 1925년 5월 1일부터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실시되었다. 2회 신문조사는, 申哲洙는 5월 5일에 실시되었고, 徐範錫·金呂鍾은 5월 7일에, 金尙洙 및 金昌俊·徐學伊·徐相郁·尹貴得·崔補林은 5월 8일에 있었다.
- 張順明(水山)은 1925년 5월 4일 종로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張順明은 全朝鮮民衆운동자대회 준비위원으로 대회 금지명령 후 각지의 군중과 함께 시위운동시 赤旗를 흔들며 만세고창 등의 활동을 하였다. 정치에 관한 불온 언론행동을 하였으므로, 보안법 2조의 금지해산 위반으로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 1925년 5월 8일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는데, 1925년 5월 9일 상기 金呂鍾 등 8명과 같이 검사의 公判청구가 있었다. 李仁·張壽·金炳魯·許憲·沈相直 등 辯護士들의 변호인 선정계가 있었고, 1925년 5월 27일 公判이 진행되었다. 2회 公判이 6월 3일 개정되었으며, 3회 公判은 6월 8일 개정되었다. 刑量은 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6월 8일 上訴權 포기신청서 제출로 刑이 확정되었다.